

[순모임 교재]

하나님이 사랑하고 싶은 사람 (욥기 1:1-12)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하나님이 사랑할 만한 사람이 된다는 것은 쉽지 않은 일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욥의 삶을 보시면서 칭찬하시고 심지어 사탄 앞에서 자랑까지 하셨습니다. 누군가의 자랑거리가 된다는 것은 참 영광스러운 삶입니다. 하나님의 자랑이 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지난 한 주의 삶을 돌아보면서 가장 기억에 남는 생명나눔은 어떤 것인지 하나씩 나누어 보십시오.

1. 성경은 욥이 어떤 사람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까? (1절) 욥의 이름은 '고난 받는 자,' '뉘우치는 자,' '나의 아버지는 어디에 계시는가'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욥은 그의 이름처럼 다양한 고난의 삶을 살았지만, 모든 상황에 하나님 앞에서 하듯(Coram Deo) 살았습니다. 내게도 '하나님 앞에서의 삶'을 살기로 결단했던 때가 있었나요?
2. 욥은 자신의 삶 뿐 아니라 자녀들의 삶도 하나님 앞에서 경결하게 세우기 원했던 영적 가장이었습니다. 10명의 자녀들을 향한 욥의 신앙 훈련은 어떤 것이었습니까? (5절) 나는 자녀들을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세우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하고 있습니까? 자녀들이 신앙에서 벗어나 있다면 자녀들의 신앙의 회복을 위해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3. 경건했던 욥의 삶에 극심한 고난의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친구들의 조연도 의미가 없었고 마음만 상하게 했습니다. 욥은 하나님이 직접 설명해 주시기를 요청했고 하나님은 그에게 친히 나타나셨습니다. 모든 고난의 끝에서 하나님을 만난 욥의 위대한 고백은 무엇입니까? (42:5) 경건하게 살아가는 사람에게도 다가오는 고난을 보면서 고난을 대하는 신자의 자세는 어떠해야 할까요?

우리 삶과 가정이 주님의 자랑거리가 되고자 하는 거룩한 열망을 품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어려움을 겪는 성도들이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하나님을 깊이 만날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스 땅에 욥이라 이름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순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욥기 1:1)